

自然科學 및 社會科學 研究者들의 情報利用特性 分析*

Comparison of Information Use Pattern between Some Scientists and Social Scientists

최은주 (Eun-Ju Choi)**

목 차

- | | |
|-----------------|------------------------------------|
| 1. 서론 | 4. 자연과학 연구자와 사회과학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 비교분석 |
|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4.1 인구학적 특성 |
| 1.2 연구의 방법 | 4.2 정보이용 |
| 1.3 연구의 범위 | 4.3 학술활동 |
| 2. 선행연구 | 4.4 정보서비스기관 이용 |
| 3. 자료의 수집 | 5. 결론 및 제언 |
|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
| 3.2 가설 | |

초 록

본 연구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서로 다른 이용자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보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추구과정에 나타나는 현실적 특성들이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가설을 토대로 하여 규명하였다. 국내 주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정보서비스기관 7곳을 이용하고 있는 217명의 연구자와 학자들을 표본집단으로 하여 29개 항목의 질문지를 배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두 집단 간의 정보이용 특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overall information use pattern of researchers and scholar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social science, and compare the information use habits between two groups. 300 questionnaires were sent out to 7 major libraries or information centers in the field, and 217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Five hypotheses were test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would exist som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their information use pattern. Som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were revealed as the findings of the study.

*키워드 : 자연과학 연구자, 사회과학 연구자, 정보이용, 정보이용행태, 이용자연구

* 본 논문은 1997년도 경기대학교 교내 연구비 과제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논문 접수일 : 1997년 2월 10일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학자나 연구자들은 그들의 전공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요구가 서로 상이할 것이다. 자연과학분야에서 추구하는 첨단기술은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자연의 현상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반면 사회과학은 사회의 여러 가지 활동과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이질적 분야에서 각기 학술활동을 하는 연구자들은 그들이 속한 학문의 영역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성격과 종류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각종 정보서비스는 이러한 이용자들의 학문영역에 따른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상의 정보서비스만 제공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이 상이한 두 학문영역의 정보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의 이용과 학술활동 측면에서 어떠한 이용행태와 특성을 보이는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이나 정보관리 정책에 반영되어 각 분야의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정보시스템을 통한 특성 있는 정보서비스의 제공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전문정보는 특정 정보시스템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와 기술적 정보처리 방법에 따라 그 이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효율적 정보서비스는 정보수요자들의 요구와 이용특성을 바탕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

부분의 기존 학술정보체계는 이용자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정보관리 주체의 원칙과 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시스템과 정보이용자들의 거리를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률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는 정보의 풍요 속의 빈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서로 다른 이용자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보요구와 입수방법, 이용정보의 종류, 탐색행위의 규명, 정보이용의 실태파악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시스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을 과학기술분야와 사회과학분야 정보이용자집단으로 대별하여 각 집단의 소속 연구자나 학자들이 그들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현실적 특성을 나타내며 또한 그러한 특성들이 정보이용행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도출하고 이들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서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문의 특성이 반영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을 통한 정보이용자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추세를 고찰하고, 학술정보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국내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 및 학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도출할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회수된 질문지를 항목별로 SAS통계패키지에 의해 통계처리하여 두 집단 간의 정보이용행태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1.3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학문분야의 성격에 따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분야를 조사대상 영역으로 전제하고 이 분야 연구자와 학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문과학분야의 연구자와 학자를 배제한 이유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사회과학분야와 인문과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는 비교적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 바 있기 때문이다. 원래 정보이용자들의 이용행태는 각 학문의 세부 영역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수십 개가 넘는 개개의 세부 학문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학문의 체계와 광범위한 연구 업무로 인하여 불가능하기도 하려니와 학문의 학제적 성격을 도외시한 단편화 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양대 학문영역으로 대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자계층의 범위는 연구와 학문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공공도서관의 생활정보를 이용하는 일반 도서관 이용자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도서관 관중을 초월한 연구결과의 일반적 적용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피험자집단은 국내 전체의 연구자집단에 비

해 소규모 표본집단에 불과하므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두 학문분야의 국내 전체 연구자집단의 정보이용행태의 특성을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2. 선행연구

초기의 이용자연구로는 1940년대 후반 영국 학술원의 Scientific Information Conference에서 보고된 것(Royal Society 1948)이 효시라고 전해진다. 특히 자연과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는 이 후에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60년대 후반에는 사회과학 연구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등장하였다. 이용자 연구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70년대 들어와서는 자연과학분야 쪽으로는 Lipetz(1970), Martyn(1974), Crawford(1978) 등의 연구가 이어졌으며, 사회과학분야 쪽에서는 Line과 Brittain에 의해 주도된 대규모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특성에 관한 INFROSS 연구(1971)를 비롯하여 이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Skelton 1971; Morrison 1979; Sternstrom and McBride 1979). '80년대의 이용자 연구는 연구방법이 다양해지기도 했지만 종래의 대규모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비교적 소규모의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보다 집중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방법에서는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이나 관찰 및 인터뷰의 기법과 같은 질적방법이 반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대

표적인 예들로는 Slater(1989)의 연구나 사회봉사분야의 정보추구행태를 연구한 INISS Project (Streatfield 1980)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와서는 각종 정보수집과정과 관련된 연구자들의 정보이용 패턴과 활동을 보다 깊게 조사해 보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정보추구과정의 제 단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행동주의적 모델의 전개를 통해서 정보추구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Ellis 1989, 1993).

국내의 경우 이용자 연구에 대한 관심 표명은 1970년대 중반부터 간헐적으로는 있었으나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은 1980년대 초반부터라고 볼 수 있다. 개별 학문분야의 정보이용상황을 다룬 것들로 자연과학분야의 정보환경을 다룬 유영준(1988), 이하범(1987), 김태승(1991, 1996)의 연구,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원에 대한 인용문헌 분석에 관한 연구(김용성 1988; 정진식 1994) 및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최은주 1996)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심리학, 경제학 등의 세부 학문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무경 1983; 윤영원 1987)도 찾아볼 수 있다. 국내의 이용자 연구의 동향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80년부터 '90년까지의 11년 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이용자연구 120편 중 사회과학분야가 6편(16%), 자연과학분야가 18편(농학계 포함 46%)으로 자연과학 쪽의 연구가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다(한복희 1992, 115-116).

한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두 학문집단 간의 정보이용자에 관한 비교연구는 국내의 경

우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외국의 경우에도 그리 많지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Ellis 등은 여러 연구들이 서로 연구목적이나 방법론 등에 있어서 차이가 많아 실제로 그 비교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Ellis, et al. 1993, 356). 그러나 학문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요인에 의해 두 집단 연구자들 간에는 정보이용행태상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비교연구는 Garvey 등(Garvey et al.1971)의 연구와 Skelton(1973), Hurych(1986), Ellis 등(1993)의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주로 두 학문집단 연구자들 간의 정보요구, 정보원의 이용, 정보검색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여 서로 간의 상이점과 유사점을 밝혀 주고 있다. 특히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Ellis 등의 연구에서는 맨체스터대학의 물리학자 및 셰필드대학의 화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얻은 연구결과를 이전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결과들과 비교하여 두 집단 간의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였다. 행동주의적 접근방법으로 "Ellis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자들의 정보추구과정을 starting, chaining, browsing, differentiating, monitoring, extracting, verifying, ending의 8단계로 나누어 이를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의 자료이용을 위한 서지도구에 대한 인식수준, 정보원의 이용범위, 그리고 연구계획상 어느 단계에서 어떤 특성이 활용되는가 등을 살펴본 결과 일정 단계에서 활용되는 정보의 특성 등에서는 물리학/화학 연구자와 사회과학 연구자 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정보추구행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

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연구자집단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통신수단 방법이 최근의 전자통신수단의 발달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3. 자료의 수집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국내의 주요 자연과학분야 연구기관 네 곳(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포항공대)과 사회과학분야 연구기관 세 곳(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을 선정, 이 곳에서 연구하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자와 학자를 표본대상으로 하였다. 우편으로 질문지를 발송, 회수하고, 보완적인 방법으로 피험자집단이 근무하는 기관의 정보관리 부서에 일정 기간 동안 질문지를 비치하여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 전체 300장 가운데 217장이 회수되어 그 회신율은 72.3%이다.

조사내용에는 피험자들의 전공배경과 연구경력, 자료이용도 등을 포함하는 기초조사와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이나 자료실의 정보시스템과 서비스에 관한 평가, 학술활동 평가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연구자들의 개인적 속성(연령, 학력, 연구경력 등), 정보환경, 수행중인 연구의 유형, 학문분야, 연구활동 등의 요인에 의한 영향과 학술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도 분석대상이 되었다.

질문지에 의해 조사된 각각의 질문문항은 통계처리패키지(SAS)에 의해 처리되고, 제시된 가설의 입증을 위한 유의도 검증을 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 217명 중 특정 항목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전체 응답자 수(N)가 항목별로 소수의 차이가 있었다.

3.2 가 설

본 연구에서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자집단의 정보이용행태상의 특성과 차이성을 규명해 보기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자연과학 연구자들과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정보이용행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본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가설들을 도출하였다.

- 1) 두 집단 간에는 연구에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2) 두 집단 간에는 연구에 이용하는 자료의 최신성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3) 두 집단 간에는 연구수행시 타인(사서 포함)으로부터 받는 도움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4) 두 집단 간에는 외국어자료의 이용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5) 두 집단 간에는 최근의 전자도서관추세에 대한 반응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위 가설들의 입증 및 반증의 결과를 통해서 자연과학 연구자집단과 사회과학 연구자집단 간의 정보이용행태상의 특성과 차이점을 파

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는 각기 두 학문분야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정보서비스기관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4. 자연과학 연구자와 사회과학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 비교분석

4.1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에 응답해 준 217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연령, 연구 경력, 최종 학위, 학위 취득 상황, 신분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분

<표 1> 인구학적 특성

		학문 영역				전 체	
		사회 과학		자연 과학			
		N	%	N	%	N	%
연 령	20대	31	34.1	60	65.9	91	100.0
	30대	50	52.1	46	47.9	96	100.0
	40대이상	23	76.7	7	23.3	30	100.0
연구경력	2년이하	28	35.0	52	65.0	80	100.0
	3-5년	27	50.9	26	49.1	53	100.0
	6-10년	32	57.1	24	42.9	56	100.0
	11년이상	17	60.7	11	39.3	28	100.0
최종학위	학사	9	23.7	29	76.3	38	100.0
	석사	35	41.2	50	58.8	85	100.0
	박사수료	32	65.3	17	34.7	49	100.0
	박사	28	62.2	17	37.8	45	100.0
학위취득	국내	79	43.2	104	56.8	183	100.0
	국외	25	73.5	9	26.5	34	100.0
신 분	교수	15	65.2	8	34.8	23	100.0
	연구원	56	49.6	57	50.4	113	100.0
	대학원생	20	33.3	40	66.7	60	100.0
	기타	13	61.9	8	38.1	21	100.0
전 체		104	47.9	113	52.1	217	100.0

야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 층은 20대, 30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86.2%, N=187), 연구 경력은 5년 미만이 과반수 이상이고(61.3%, N=133), 국내 학 위 취득자가 84.3%(N=183)이며, 신분별로는 과반수 이상(52.1%, N= 113)이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2 정보이용

1) 이용자료의 유형

가설 1과 관련하여 평소 이용하는 자료의 형태를 인쇄자료와 비인쇄자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인쇄자료의 이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통 이하(M=4.3)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연속간행물(M=7.3), 단행본(M=6.3), 연구보고서(M=5.2)가 다소 많이 이용되는 자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인쇄자료는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

데(F(1,214)=31.76, p<.001), 사회과학 연구자(M=4.8)들이 대체로 자연과학 연구자(M=3.8)들 보다 인쇄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연속간행물, 단행본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자료를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자연과학 연구자들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허자료와 규격자료에서만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속간행물이나 단행본의 이용에 있어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도 사회과학분야의 이용률이 높은 것을 볼 때 사회과학분야에서도 자연과학분야 못지않게 연속간행물을 중요한 정보원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인쇄자료의 경우 인쇄자료보다도 이용률이 적어 평균 이하(M=3.2)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3>, 두 집단 간의 차이도 모든 항목에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비인쇄자료의 이용순위를 보면

<표 2> 이용자료의 유형(인쇄자료)

	연속간행물		도서/단행본		회의자료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신문		정부간행물		특허자료		규격자료		인쇄자료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학문	사회	7.5	2.0	6.9	2.1	3.7	2.4	6.0	2.3	4.9	2.9	6.4	2.5	5.4	2.4	1.0	1.6	1.2	1.9	4.8	1.2
	자연	7.2	2.1	5.8	2.2	3.0	2.8	4.4	2.5	3.6	2.5	2.9	3.0	1.9	2.2	2.6	2.8	1.7	2.5	3.8	1.4
전체	7.3	2.1	6.3	2.2	3.3	2.7	5.2	2.5	4.2	2.8	4.6	3.2	3.7	2.9	1.8	2.4	1.5	2.2	4.3	1.4	
유의도	af1=1,		df1=1,		df1=1,		df1=1,		df1=1,		df1=1,		df1=1,		df1=1,		df1=1,		df1=1,		
	df2=213		df2=214		df2=201		df2=210		df2=209		df2=205		df2=206		df2=203		df2=195		df2=214		
	F=1.22		F=12.96		F=3.01		F=23.62		F=11.75		F=84.53		F=118.3		F=25.41		F=2.72		F=31.76		
	p=.2397		p=.0004		p=.0844		p=.0001		p=.0007		p=.0001		p=.0001		p=.0001		p=.1010		p=.0001		

〈표 3〉 이용자료의 유형(비인쇄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오디오 / 비디오		CD-ROM		데이터 베이스		외부 온라인		비인쇄 자료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학 문	사회과학	2.0	2.5	1.5	1.9	3.0	3.1	4.8	3.3	4.3	3.2	3.3	2.0
	자연과학	1.5	2.1	1.4	2.1	3.6	3.2	4.2	3.2	3.7	3.0	3.1	2.1
전 체		1.7	2.3	1.4	2.0	3.3	3.1	4.5	3.3	4.0	3.1	3.2	2.0
유 의 도		df1=1 df2=198 F=2.19 p=0.1409		df1=1 df2=195 F=0.16 p=0.6892		df1=1 df2=203 F=1.46 p=0.2283		df1=1 df2=204 F=1.95 p=0.1642		df1=1 df2=200 F=2.53 p=0.1134		df1=1 df2=212 F=0.69 p=0.4086	

〈표 4〉 이용자료의 유형별 우선 순위

순위	자 연 과 학		사 회 과 학	
	인쇄자료	비인쇄자료	인쇄자료	비인쇄자료
1	정기간행물(7.2)	내부DB(4.2)	정기간행물(7.5)	내부DB(4.8)
2	단행본(5.8)	외부DB(3.7)	단행본(6.9)	외부DB(4.3)
3	연구보고서(4.4)	CD-ROM(3.6)	연구보고서(6.0)	CD-ROM(3.0)
4	학위논문(3.6)	마이크로(1.5)	정기간행물(5.4)	마이크로(2.0)
5	회의자료(3.0)	오 / 비디오(1.4)	학위논문(4.9)	오 / 비디오(1.5)
6	특허자료(2.6)		회의자료(3.7)	
7	규격자료(1.7)		규격자료(1.2)	
8	정부간행물(1.9)		특허자료(1.0)	

* ()은 평균(M)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외부 온라인>CD-ROM>마이크로형태자료>오디오/비디오자료 순이다. 기타 평소의 연구를 위해 정보원으로 이용되는 것으로는 학술회의, 소속기관 내부동료, 외부 동일 전공 동료, 외부 전문가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자(M=4.9)들이 자연과학 연구자(M=4.2)들에 비해 기타 정보원에 접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료의 우선 순위를 학문분야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5〉 연구착수단계의 주요정보원

		2차 자료	외 부 전문가	선 임 연구자	장서 목록	도서관 서 가	참고 문헌	본인 소장 자료	온라인 검색	기 타	전 체	유의도	
학 문 별	사회 과학	N	42	19	34	30	21	68	40	45	9	308	df=8 $\chi^2=21.329$ p=0.006
		%	13.6	6.2	11.0	9.7	6.8	22.1	13.0	14.6	2.9	100	
	자연 과학	N	50	18	53	12	24	93	27	54	4	335	
		%	14.9	5.4	15.8	3.6	7.2	27.8	8.1	16.1	1.2	100	
전 체		N	92	37	87	42	45	161	67	99	13	643	
		%	14.3	5.8	13.5	6.5	7.0	25.0	10.4	15.4	2.0	100	

(8가지 정보원 중 우선 순위에 의한 복수 응답 허용 항목)

2) 연구착수단계에서의 주요정보원

두 연구자집단 모두 연구착수단계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정보원은 도서관 학술지의 참고문헌(25.0%)인 것으로 밝혀졌다(표 5). 두 집단의 접근방식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즉 자연과학 연구자들의 경우는 참고문헌(27.8%), 온라인검색(16.1%), 선임연구자(15.8%), 2차자료(14.9%), 본인소장자료(8.1%)의 순이며,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경우는 참고문헌(22.1%), 온라인검색(14.6%), 2차자료(13.6%), 본인소장자료(13.0%), 선임연구자(11.0%)의 순이다. 도서관서거나 장서목록의 이용은 의외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3) 연구과제당 참고자료의 수

평소 연구과제수행을 위해 참고하는 자료의 수로는 약 절반 정도의 연구자(48.4%, N=104)들이 11~30종의 연구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이를 다시 집단별로 살펴보면 자연과학 연구자들은 54.9%(N=62)가 11~30종, 23.0%(N=26)가 30~50종을 이용하는 반면,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41.2%(N=42)가 11~30종을, 36.3%(N=37)가 30~50종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과학분야가 자연과학분야보다 참고

〈표 6〉 연구과제당 참고자료의 수

		10종 이하		11-30종		30-50종		50종 이상		전체		유의도
		N	%	N	%	N	%	N	%	N	%	
학 문	사회과학	9	8.8	42	41.2	37	36.3	14	13.7	102	100.0	df=3 $\chi^2=10.457$ p=0.015
	자연과학	17	15.0	62	54.9	26	23.0	8	7.1	113	100.0	
전 체		26	12.1	104	48.4	63	29.3	22	10.2	215	100.0	

〈표 7〉 연구에 이용하는 자료의 최신성

		1년 이내		2-5년		5-10년		10년 이상		전 체		유의도
		N	%	N	%	N	%	N	%	N	%	
학 문	사회과학	28	27.2	70	68.0	3	2.9	2	1.9	103	100.0	df=3 χ²=14.471 P=0.002
	자연과학	24	21.4	64	57.1	17	15.2	7	6.2	112	100.0	
전 체		52	24.2	134	62.3	20	9.3	9	4.2	215	100.0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 모두 연령, 경력, 신분별 차이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에 이용하는 자료의 최신성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자료의 최신성을 알아보기 위해 출판된 지 몇 년이 경과한 자료를 주로 이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출판된 지 2~5년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62.3%, N=13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자연과학 연구자집단은 응답자의 57.1%(N=64)가 출판된 지 2~5년, 21.4%(N=24)가 1년 이내의 자료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총 78.5%(N=88)가 출판된 지 5년 이내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경우 응답자의 68.0%(N=70)가 2-5

년, 27.2%(N=28)가 1년 이내의 자료를 이용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총 95.2%(N=98)가 출판된 지 5년 이내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연과학 연구자들이 다른 어떤 학문분야 보다 최신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기존의 학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사회과학분야도 자연과학분야 못지않게 최신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최근의 연구추세 및 동향 파악

전공에 관한 최근의 연구추세 및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은 두 연구자 집단 모두 학술지를 통해서(76.2%, N=163)가 으뜸으로 나타났다(표 8). 두 집단 공히 학술지, 학술모임, 동료와의 대화의 순으로 최근 연구동향에 관한

〈표 8〉 최근의 연구추세 및 동향 파악

		학술지		학술모임		동료와대화		전 체		유의도
		N	%	N	%	N	%	N	%	
학 문	사회과학	80	79.2	12	11.9	9	8.9	101	100.0	df=2 χ²=1.020 p=0.601
	자연과학	83	73.5	18	15.9	12	10.6	113	100.0	
전 체		163	76.2	30	14.0	21	9.8	214	100.0	

〈표 9〉 문헌탐색의 도움여부와 도움자

		있 다										없 다		전 체	
		도서관 담당자		정 보 담당자		동 료 연구자		기 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학	사회과학	42	41.6	7	6.9	19	18.8	9	8.9	77	76.2	24	23.8	101	100
문	자연과학	20	18.2	8	7.3	34	30.9	8	7.3	70	63.6	40	36.4	110	100
전 체		62	29.4	15	7.1	53	25.1	17	8.1	147	69.7	64	30.3	211	100
유의도		df = 3 $\chi^2 = 4.695$ p = 0.196						df = 1 $\chi^2 = 3.021$ p = 0.082							

정보를 얻고 있어, 두 학문분야 간에 최근의 연구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연구자의 경우 연령별 ($\chi^2=12.939$, $p<.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30대 연구자의 85.7% (N=42)가 학술지를 통해서라고 응답함으로써 이 연령층의 학술지에의 의존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보인다.

6) 문헌탐색의 도움여부와 도움자

평소 연구에 필요한 문헌의 탐색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69.7%(N=147)가 타인으로

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두 집단 모두 타인에게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사회과학 연구자집단은 76.2%(N=77)가, 자연과학 연구자집단은 63.6%(N=70)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회과학분야의 경우 도서관담당자(41.6%, N=42), 동료연구자(18.8%, N=19), 정보담당자(6.9%, N=7)의 순이다. 반면 자연과학분야의 경우는 동료연구자(30.9%, N=34), 도서관담당자(18.2%,

〈표 10〉 국내자료와 외국자료의 이용 비율

		10/90	20/80	30/70	40/60	50/50	60/40	70/30	80/20	90/10	100/0	전 체	유의도
학 문 분 별	사회과학	N 23	19	18	8	13	7	7	6	3	.	104	df=9 $\chi^2=42.845$ p=0.0001
		% 22.1	18.3	17.3	7.7	12.5	6.7	6.7	5.8	2.9	.	100	
	자연과학	N 63	20	8	8	3	3	1	3	1	3	113	
		% 55.8	17.7	7.1	7.1	2.7	2.7	0.9	2.7	0.9	2.7	100	
전 체		N 86	39	26	16	16	10	8	9	4	3	217	
		% 39.6	18.0	12.0	7.4	7.4	4.6	3.7	4.1	1.8	1.4	100	

N=20), 정보담당자(7.3%, N= 8)의 순으로, 각각 사회과학분야는 도서관담당자, 자연과학분야는 동료연구자의 도움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의 연구수행시 타인의 도움정도는 4.4의 2) 사서의 도움정도의 결과와 더불어 도움의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국내자료와 외국자료의 이용 비율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자집단 모두 국내 자료 외에 외국자료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10>, 전체적으로 볼 때 연구자의 약 70%가 국내자료와 외국자료의 이용비율이 약 7 : 3 정도로 외국자료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두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chi^2=42.845$, $p < .001$), 즉 자연과학 연구자집단의 경우 국내 자료 : 외국자료를 10 : 90의 비율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55.8%(N=63)에 이르며, 20 : 80의 비율은 17.7%(N=20)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과학 연구자집단의 경우는 10 : 90의 비율 이용자는 39.6%(N=86)이며, 20 : 80의 비율 이용자는 18.0%(N=39)로서 외국 자료 이용률은 자연과학 연구자들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 4는 입증되

었다고 볼 수 있다.

8) 영어 외의 사용 외국어

영어 외에 학술활동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두 집단 모두 일본어(61.3%, N=133)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11>. 분야 별로 살펴보면 자연과학의 경우는 일본어(61.1%, N=69), 기타어(12.1%, N=14), 독일어(11.5%, N=13) 순, 사회과학의 경우는 일본어(61.5%, N=64), 중국어, 독일어, 기타어(각각 8.7%, N=9), 불어(1.0%, N=1)의 순을 보이고 있다. 영어 외의 다른 외국어 사용이 전혀 없다는 연구자들의 비율은 각각 약 10%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경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chi^2=26.116$, $p < .05$), 경력이 11년 이상(21.4%, N=6)의 비교적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외국어 사용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과 경력이 많을수록 영어 외의 외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영어 외의 사용 외국어

		없 음		불 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어		전 체		유의도
		N	%	N	%	N	%	N	%	N	%	N	%	N	%	
학 문	사회과학	12	11.5	1	1.0	9	8.7	64	61.5	9	8.7	9	8.7	104	100	df=5 $\chi^2=2.915$ p=0.713
	자연과학	10	8.8	2	1.8	13	11.5	69	61.1	5	4.4	14	12.1	113	100	
전 체		22	10.1	3	1.4	22	10.1	133	61.3	14	6.5	23	10.6	217	100	

〈표 12〉 국내 학술모임 참석 상황

		항상 참석		자주 참석		가끔 참석		거의/전혀 참석않음		전 체		유의도
		N	%	N	%	N	%	N	%	N	%	
학 문	사회과학	8	7.8	24	23.3	51	49.5	20	19.4	103	100	df=3 $\chi^2=2.731$ p=0.435
	자연과학	8	7.1	38	33.9	51	45.5	15	13.4	112	100	
전 체		16	7.4	62	28.8	102	47.4	35	16.3	215	100	

4.3 학술활동

1) 국내 학술모임 참석 상황

전반적으로 볼 때 두 연구자집단의 학술모임 참석 상황은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두 집단별로 '항상 참석', '자주 참석', '가끔 참석'의 비율을 각각 합해 보면 자연과학 연구자집단의 경우 86.5%(N=97), 사회과학 연구자집단은 80.6%(N=83)로서 이들은 국내 학술모임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을 비교해 본다면 사회과학 쪽(23.3%, N=24)에 비해 자연과학 쪽(33.9%, N=38)의 '자주 참석'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아 자연과학분야 연구자들의 학술모임 참석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 집단 간에는 연구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학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학사학위의 경우 자연과학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의 학술모임 참석률이 '항상 참석'과 '자주 참석'의 비율을 합하여 31%(N=9)로 나타나 비교적 참석률이 높은 반면, 사회과학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 집단의 경우에는 단 1명도 참석하는 사람이 없어 두 학문분야가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2) 학술모임에서의 주요 정보원

학술모임에서 얻게 되는 주요 정보원은 두 연구자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학술모임에서 배포되는 유인물(49.0%, N=107)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13), 사회과학 연구자집단(54.0%, N=56)

〈표 13〉 학술모임에서의 주요 정보원

		유인물		토론회		동료대화		기 타		전 체		유의도
		N	%	N	%	N	%	N	%	N	%	
학 문	사회과학	56	54.0	28	27.0	9	8.7	11	10.5	104	100	df=3 $\chi^2=7.299$ p=0.063
	자연과학	51	45.0	33	29.0	22	19.5	7	6.2	113	100	
전 체		107	49.0	61	28.0	31	14.3	18	8.3	217	100	

〈표 14〉 도서관 이용빈도

		거의 매일		1주당		1개월당		3개월 이상당		전 체		유의도
		N	%	N	%	N	%	N	%	N	%	
학 문	사회과학	27	26.2	53	51.5	18	17.5	5	4.9	103	100	df=3 $\chi^2=6.558$ P=0.087
	자연과학	12	10.6	67	59.3	28	24.8	6	5.3	113	100	
전 체		39	18.1	120	55.6	46	21.3	11	5.1	216	100	

의 경우가 자연과학 연구자집단(45.0%, N=5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동료와의 대화를 통한 정보입수는 자연과학 연구자집단(19.5%, N=22)이 사회과학 쪽(8.7%, N=9)보다 높았으며 토론과정을 통한 정보의 입수는 두 집단이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4.4 정보서비스기관 이용

1) 도서관이용 빈도

두 연구자집단의 평소의 도서관이용실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그 이용빈도를 조사해 본 결과 과반수(55.6%, N=120)가 1주에 1회 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매일 이용하는 연구자들도 18.1%(N=39)에 이르러 약 74%가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에 한

번은 도서관을 찾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4).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자연과학 쪽의 '매일' 이용률과 '1주 1회' 이용률의 합산이 69.9%(N=79), 사회과학 쪽은 77.7%(N=80)로 사회과학 연구자집단의 이용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자연과학분야는 신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chi^2 = 42.576$, $p < .001$), '매일' 이용률과 '1주 1회' 이용률의 합산에 의해 볼 때 이용빈도가 높은 순위는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의 순이었다.

2) 사서의 도움 정도

연구자들이 도서관에서 연구자료 이용시 사서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가끔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8.4%, N=83), '자주 도움을 받는다'는

〈표 15〉 사서의 도움 정도

		상당 도움		자주 도움		가끔 도움		거의 무익		전혀 무익		전 체		유의도
		N	%	N	%	N	%	N	%	N	%	N	%	
학 문	사회과학	23	22.3	25	24.3	30	29.1	21	20.4	4	3.9	103	100	df=4 $\chi^2=24.288$ p=0.0001
	자연과학	3	2.7	23	20.4	53	46.9	26	23.0	8	7.1	113	100	
전 체		26	12.0	48	22.2	83	38.4	47	21.8	12	5.6	216	100	

〈표 16〉 도서관 자료검색과정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목록형태

		카드식목록		온라인목록		장서목록		전 체		유의도
		N	%	N	%	N	%	N	%	
학 문	사회과학	28	27.2	58	56.3	17	16.5	103	100.0	df=2 $\chi^2=14.722$ p=0.001
	자연과학	12	10.7	62	55.4	38	33.9	112	100.0	
전 체		40	18.6	120	55.8	55	25.6	215	100.0	

비율은 22.2% (N=48),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은 12.0% (N=26)로서 전반적으로 약 73% 정도가 사서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15). 집단별로 볼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chi^2=24.288$, $p<.001$), 위의 비율의 합산이 자연과학 쪽은 70% (N=79), 사회과학 쪽은 75.7% (N=78)로 사회과학 쪽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며, 특히 '상당히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사회과학 쪽이 22.3% (N=23)인데 비해 자연과학 쪽은 2.7% (N=3)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사회과학 쪽이 사서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용하는 목록형태
두 학문집단의 연구자들이 자료검색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목록의 형태는 온라인목록 (55.8%, N=120), 장서목록 (25.6%, N=55), 카드식목록 (18.6%, N=40)의 순이었다(표 16). 이는 학문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chi^2=14.722$, $p<.01$), 온라인목록의 이용률에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자연과학분야는 장서목록 (33.9%, N=38), 사회과학분야는 카드식목록 (27.2%, N=28)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경우는 연령별 ($\chi^2=19.976$, $p<.01$), 경력별 ($\chi^2=25.519$, $p<.001$), 취득학위별 ($\chi^2=19.088$, $p<.01$)로서 연령과 경력 및 취득학위가 낮을수록, 자연과학자들도 취득학위 ($\chi^2=17.922$, $p<.01$)가 낮을수록 온라인목록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곧 전반적으로 연령

〈표 17〉 컴퓨터화된 정보검색의 방법

		직접 탐색		위임 탐색		이용 없음		전 체		유의도
		N	%	N	%	N	%	N	%	
학 문	사회과학	63	61.2	21	20.4	19	18.4	103	100.0	df=2 $\chi^2=3.291$ p=0.193
	자연과학	65	58.6	17	15.3	29	26.1	111	100.0	
전 체		128	59.8	38	17.8	48	22.4	214	100.0	

이나 경력이 적은 젊은 층이 온라인목록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의미라고 보여진다.

4) 컴퓨터화된 정보검색의 방법

연구자들이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검색의 필요성을 느낄 때 자신이 직접 행하는지, 사서에게 위임하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직접 탐색의 비율이 59.8% (N=128)로서 사서에게의 위임 탐색 (17.8%, N=38)에 비해 단연 높았다(표 17). 이는 신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chi^2=17.728, p<.01$), 교수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서 직접 탐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보이고 있었다. 학문의 집단별로 보면 유의하지는 않으나 사회과학분야의 직접 탐색 비율이 분포상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61.2%, N=63), 위임 탐색 역시 조금 높게 나타나 (20.4%, N=38) 두 분야 간에 비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5) 전자도서관 추세에 대한 견해

최근의 전자도서관 추세에 대한 연구자들의 반응을 조사해 본 결과 상당수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 (71.3%, N=154)고 응답함으로써 정보이용방식의 변화에 대해 펴 긍정적인

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표 18). 두 연구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분포상으로 볼 때 적극 수용의 견해에 자연과학 연구자집단은 67.9% (N=76), 사회과학 연구자집단은 75.0% (N=78)로 유사한 수의 연구자들이 긍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서서히 변화해야 한다'는 견해는 자연과학 쪽이 29.5% (N=33), 사회과학 쪽이 20.2% (N=21)를 나타냄으로써 자연과학 쪽이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자연과학 연구자집단은 특히 연령별 ($\chi^2=24.829, p<.001$), 신분별 ($\chi^2=13.053, p<.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신분별로는 교수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시대변화에 따라 서서히 수용해야 한다는 반응을 높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설 5의 내용과는 달리 자연과학, 사회과학 두 연구자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전자도서관추세에 대한 견해

		거부감		시대변화		적극수용		모르겠다		전체		유의도
		N	%	N	%	N	%	N	%	N	%	
학 문	사회과학	3	2.9	21	20.2	78	75.0	2	1.9	104	100	df=3 $\chi^2=5.423$ p=0.143
	자연과학	.	.	33	29.5	76	67.9	3	2.7	112	100	
전 체		3	1.4	54	25.0	154	71.3	5	2.3	216	100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자 217명을 대상으로 이들 두 학문집단 간의 정보이용행태상의 특성과 차이점을 가설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검증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평소 연구에 이용하는 인쇄자료의 우선 순위는 두 집단 모두 연속간행물, 단행본, 연구보고서의 순이며, 모든 항목에서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자연과학 연구자들보다 인쇄자료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허자료와 규격자료에서만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자연과학 연구자들보다 학술회의, 소속기관이나 외부의 동일전공 동료들로부터 정보를 더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두 집단 모두 도서나 학술지의 참고문헌이 연구착수단계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정보원이었으며, 이들의 절반 정도가 11~30종의 참고자료를 평소 연구과제수행에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과학 쪽이 자연과학 쪽보다 참고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출판된 지 5년 미만의 자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두 집단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곧 두 분야 공히 자료의 최신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문헌탐색 등 평소의 연구를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도움은 자연과학 연구자 쪽보다 사회과학 연구자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특히 사서의 도움을, 자연과학 연구자들은 동료연구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5) 연구에 이용되는 국내자료와 외국자료의 비율은 자연과학 연구자집단의 외국자료 이용 비율이 사회과학 연구자집단 보다 높게 나타나 자연과학 연구자집단의 외국자료에의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6) 두 집단 모두 학술모임 참석은 활발한 편이며 자연과학 쪽이 조금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모임에서 배포되는 유인물이 주요 정보원이 되고 있었다.

7) 도서관이용 빈도는 두 집단 모두 높은 편이며 사회과학 연구자 쪽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게 온라인목록이 자료검색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로 밝혀졌으며 컴퓨터에 의한 정보검색은 위임 탐색보다는 직접 탐색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8) 최근의 전자도서관 추세에 대한 연구자들의 반응은 두 집단 모두 상당수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새로운 정보이용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흡하나마 본 연구를 통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그들이 속한 학문의 영역에 따라 정보이용패턴에 있어서 공통점과 상이점이 각각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기관은 그 성격이 단일 학문분야이든 다학문분야이든 간에 이와 같은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의 정보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이용자 위주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김용성. 1988.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원에 관한 인용문헌분석." 도서관학, 제15집. pp.73-94.
- 김태승. 1991. "과학기술정보봉사의 비이용요인에 관한 연구-독립 연구기관의 경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_____. 1996. "과학기술연구자들의 정보환경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pp.5-18.
- 유영준. 1988. "과학기술분야 연구소내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윤영원. 1987. "심리학자들의 정보요구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하범. 1987.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진들의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진식. 1994. "사회과학문헌 인용분석연구-경제학·문헌정보학·행정학 중심-. 정보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pp.31-48.
- 최은주. 1996. "사회과학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 pp.13-38.
- 한무경. 1983. "경제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복희. 1992. "이용자연구에 관한 동향분석." 도서관학, 제23집. pp.107-119.
- Crawford, S. 1978. "Information Needs and Uses." *ARIST*, 13 : 61-81.
- Ellis, David. 1989. "A Behavioral Approach to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Design." *Journal of Documentation* 45 : 171-212 ; David Ellis. 1993. "Modeling the Information-seeking Patterns of Academic Researchers : A Grounded Theory Approach." *Library Quarterly* 63 : 469-486.
- Ellis, David, Deborah Cox and Katherine Hall. 1993. "A Comparison of the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of Researchers in the Physical and Social Sciences." *Journal of Documentation*, 49(4) : 356-369.
- Folster, Mary B. 1995.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 Social Sciences." *Reference Librarian* 49/50 : 83-93.
- Garvey, W. D., N. Lin and C. E. Nelson. 1971. "A Comparison of Scientific Communication Behaviour of Social and Physical Scientist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23(2) : 256-272.
- Hurych, J. 1986. "After Bath : Scientists, Social Scientists and Humanists in the Context of Online

- Searching."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2 : 158-165.
- Line, M. B., J. M. Brittain and F. A. Cranmer. 1971. "Investigation into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of the Social Sciences, report no.1 : Information Requirements of Researchers in the Social Sciences." 2 vols. Bath University Library(OSTI Report 5096).
- Lipetz, B. 1970. "Information Needs and Uses." *ARIST*, 5 : 3-32.
- Martyn, J. 1974. "Information Needs and Uses." *ARIST*, 9 : 3-23.
- Morrison, Perry D. 1979. "Since Bath : A Review of Published Information Transfer Studies in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974 through 1978." *Behavioral Sciences Librarian* 1(1) : 5-22.
- ROYAL SOCIETY. 1948. "Report on the Royal Society Scientific Information Conference." London : Royal Society.
- Skelton, B. 1973. "Scientists and Social Scientists as Information Users : A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Science User Studies with the Investigation into Information Requirements of the Social Sciences." *Journal of Librarianship*, 5 : 138-156.
- Slater, M. 1989. "Information Needs of "Social Scientists : A Study by Desk Research and Interview." Boston Spa : British Library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British Library Research Paper No. 60).
- Stenstrom, Patricia and Ruth B. McBride. 1979. "Serial Use by Social Science Faculty : A Surve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0 : 426-431.
- Streatfield, David R. and Thomas D. Wilson. 1980. "Information Services in English Social Services Departments : Implications of Project INISS."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Librarian* 1 : 189-199.